

기업가정신역량기반 교육 연구: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EntreComp(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 도출

변지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전담교수)*

이장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국 문 요 약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국내 대학에서는 창업교육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학문적·정책적·실무적 관점에서 창업교육을 체계화 시키고 교육과 창업지원 성과 간 관계를 밝힘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을 도모하려는 관심과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다년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역량(EntreComp: Entrepreneurship Competence)체계를 구축하여 타인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며 역량이 국민의 전 생애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있는 반면 국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주로 교양 수준의 창업스킬에 머물러 있거나 경영학 관점에서 접근하기 수월한 교육주제에 편중되고 있어 체계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가정신역량기반 창업교육 체계를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EntreComp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델파이(delphi)조사법 등을 통해 대학생을 위한 8개의 EntreComp frame을 도출하였으며, 2018년도 42개 창업선도대학의 919개 학부 창업교육을 전수조사 하여 EntreComp별 교육현황을 밝혔다.

EU의 EntreComp를 연구한 Bacigalupo et al.(2016) 자료를 포함한 25개의 기업가정신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고 연구 빈도와 교육·창업 관점에서의 중요도를 반영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학 창업교육의 목적을 근거로 spotting opportunities, value creation, self improvement, mobilising resources, technology application, strategic management, relationship, learning through experience의 총 8개로 구성된 기업가정신역량 체계를 전문가의 검증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리고 역량별 교육 현황, 역량교육 반영 정도와 각 대학의 재학생수를 모수로 하는 창업지원성과 간 추가분석을 통해 향후 대학에서 EntreComp 관점으로 창업교육을 체계화해 나가는데 있어 방향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본 연구는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이 가져야 할 창업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역량 프레임에 제시하였고, 일정 기간 창업선도대학에서 운영된 창업교과목 자료를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차별성을 가지지만 창업선도대학의 표본수가 제한적이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역량 관점에서 대학 창업교육을 고도화시키고 미래 요구역량 함양 및 타인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안하고 기업가정신역량 프레임에 대하여 더욱 본질적인 관점으로 연구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후속연구에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역량, EntreComp 프레임, 기업가정신역량기반 교육, 대학 창업교육, 창업교육 체계

1. 서론

4차산업 및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유례없는 저성장과 높은 실업율이 지속되고 있다. 맥킨지(Mckinsey)는 급변하는 산업 구조 변화로 기존의 5% 미만 직업만이 현재의 기술을 활용한 전체 자동화가 가능하며, 더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 및 일자리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나 환경훼손 문제도 대학을 포함한 창업 및 경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필립코틀러(2015)가 제시한 다른 자본주의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경제나 공유가치창출(CSV)과 같은 맥락으

로 타인과 가치를 나눌 줄 아는 기업가 육성 또한 시급하다. 또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경제구조적 요인 등으로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경제·문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며 특히 대학 등에서의 직업교육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이철기 외, 2019). 그러나 취업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르는 창업교육 관점으로 살펴 본다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청년 기업가정신이나 창업교육 지원현황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혁명과 일자리 구조 변화에 뒤따르는 사회문제를 해소

* 주저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전담교수, designkorea1@naver.com.

** 교신저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janghlee@koreatech.ac.kr

· 투고일: 2020-07-10

· 1차수정일: 2020-11-24

· 2차수정일: 2020-12-14

· 게재확정일: 2020-12-22

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전선에서 청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이 그 어느때 보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고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등 진로관점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학에서는 역량기반 교육 목표와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단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 창업교육에도 반영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 해외사례 대비 국내대학의 창업교육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개선시켜 나가려는 의도가 교육에 반영되기 전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나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학 내 창업교육을 양적으로 확대시켜 왔으나 국내대학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은 이론적 기반과 체계가 미약(목영두·최명길, 2012)하고 다소 범용적인 이론 중심의 경영이론이나 교양 수준(남정민, 2017)에 머물러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아쉬운 상황이다. 또한 일자리 축소 상황이나 실업율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는 창업을 진로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에(오해섭·맹영인, 2014), 창업교육 관련 교과목을 단계별로 구축(정차근, 2013)하고 고도화해 나가야한다.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실천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기에(남정민, 2017) 대학교육에서는 그 몫을 해낼 수 있도록 교육 목적과 체계가 정비되어야겠다.

최근 창업교육분야에서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계획에 기반하여 대학별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창업지원역량 모델을 수립하는 연구가 수행되는가 하면, 김도현 외(2020)의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보고서에서도 개인에 대해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을 다룬다. 대학창업운영매뉴얼 3.0+(2019)에서는 필요역량과 지원모듈을 제안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기업가 및 창업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험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남정민, 2017). 또한 대학생 대상 교육에서 요구되는 진로관점 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방안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연구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가정신 및 역량도출에 대한 연구 결과가 희소한 상황으로(Ploum et al., 2018) 대학 창업교육의 양적 성장에 이어 사회문제 해결 및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질적 성장방안에 대한 연구계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기반하여 기업가정신역량(EntreComp: Entrepreneurship Competence. 이하 EntreComp로 표기)과 EntreComp 프레임(frame)에 대하여 정의하고, 국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EntreComp 프레임을 대학 창업교육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해 나가는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대학생의 자아실현 및 창업성공가능성을 높여 창업 및 취업 진로활동과 향후 전 생

애적 시각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존재가치를 갖추어 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정신역량 (EntreComp: Entrepreneurship Competence)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지속적으로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고나 행동방식을 특징짓는 포괄적인 용어로 위험감수, 혁신, 기회의 포착과 활용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며(이채원 외, 2017), 성공적인 작업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knowledge elements), 기술 및 태도(skills, and attitudes)로 구성된다고 보거나(Mulder, 2014) 이에 더하여 개인적 특성(personal traits)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Ploum et al., 2018).

역량(capability)은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핵심기술, 핵심역량, 일반기술, 핵심자질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된다(소경희, 2007). 주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역량의 경우 기존의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의 의미에서 발전해 삶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내면적 특성, 상호작용이나 다양성에 대한 대응, 사회기여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특성을 가진다.

<표 1> 역량의 정의

연구자	역량 정의
White(1959)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의 능력. 최소로 역량을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능력이라 보았으며, 실제 수행상황에서 요구되는 과제 수행능력
Spencer & Spencer (1993)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 효과적이고 우수하게 수행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 특정한 직무와 상황에서 탁월한 성과도출과 연관되는 개인의 동기과 특성,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의 내적인 특성
Rychen & Salganik (2003)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실행의 의미를 가지며,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Barth & Rieckmann (2007)	개인 수준에서 실제 문제나 도전 및 기회와 관련하여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
Boyatzis (1982)	직무에서 효과적이거나 우수한 성과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기본 특성

자료: 송주현(2014)자료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역량에 대한 영문표기는 competence나 competency가 주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박천호·김상목, 2004), competence는 기준이나 기술의 개념이고 competency는 행동의 개념에 가깝다(Rowe, 1995). 또는 조직에 초점을 둔 조직역량(competence)은 어떤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내는 원인이 조직에 있다고 보는 방식이고, 반면 개인에 초점을 둔 개인역량(competency)은 그 원인이 개인의 역량에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구분된다(이순희, 2015). 해외 연구에서는

2015년도 이후로 competence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내 연구에서의 역량에 대한 영문표기는 ability(김용태, 2017), entrepreneurship(이지안·안영식, 2018), competence(박대한·성창수, 2019) 등으로 다양하다.

<표 2> 역량관련 용어 비교

용어	용어별 정의
ability	특정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갖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capability	사람이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skill, competence와 유사
capacity	보통 특별한 개인적 잠재력을 의미하고 관련된 지식·기술·역량(competence)을 포함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사용, potential과 유사
skill	특정한 과제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
competency	우수하거나 효과적인 수행을 이끄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
competence	안정적이거나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식, 노하우,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을 다양한 상황의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의 능력

자료: 송주현(2014)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EntreComp에 대한 정의도 다양한데,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나 직무효율성 관점에서 이후 바람직한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적·잠재적 특성, 그리고 가치창출 개념을 내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연구 흐름을 보인다.

<표 3> 기업가(정신)역량 정의

연구자	기업가(정신)역량의 정의
McClelland (1973)	역량을 직무기준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우수한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개인의 기초특성으로 정의
Boyatzis (1982)	직무에서 효율적이거나, 우수한 수행력을 보이는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
Spencer & Spencer(1993)	역량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특성
Lackeus(2014)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업가적 업무수행 의지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attitudes)
Bacigalupo et al.(2016)	자신 이외의 사람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자 국민의 전 생애적 경쟁력
김용태(2017)	개인이 기업가(Entrepreneur)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특성
곽동신·정철호 (2017)	개인이 기업인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특성
이지안·안영식 (2018)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창출 뿐만 아니라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는 창업자 사고
박대한·성창수 (2019)	특정 상황과 직무 수행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

자료: 박우종(2014), 이상화(2016), 정길호(2017), 채연희(2017) 자료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EntreComp의 구성요인도 연구 맥락별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데 주로 창업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술적 관점을 넘어 인간적 능력, 인간관계 능력, 지식, 다양한 사업화 능력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Bacigalupo et al.(2016) 연구의 경우, 특히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 내면적 성장도 고려하면

서 필요한 자원을 갖추어 실행하는 과정까지의 전방위적 체계를 갖춘 최초의 연구이자 관련 역량요인을 구체화한 차별성을 가진다.

<표 4> EntreComp (기업가정신역량)의 구성

연구자	기업가(정신)역량(능력)의 구성요인
Katz(1974)	technical skills, human skill, conceptional skill
Picklem & Abrahamson (1990)	drive, mental ability, human resources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technical knowledge
Bacigalupo et al.(2016)	spotting opportunity, creativity, vision, valuing ideas, ethical & sustainable thinking, self awareness & self efficacy, motivation & perseverance, mobilising resources, financial & economic literacy, mobilising others, taking the initiative, planning & management, coping with ambiguity, uncertainty & risk, working with others, learning through experience
창업넷(2018)	창업자역량, 시장기회, 아이템 분석, 비즈니스모델, 전략
이용희(2016)	벤처기업 창업자 핵심역량의 주요 가치는 자기성찰, 혁신성, 실천성, 관계성
채연희(2017)	의사소통능력, 기술적 능력, 관리능력, 경제능력

자료: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 정리

본 연구에서의 EntreComp는 다양한 정의와 구성요인에 더하여 진로교육 관점에서 대학생들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1 Burgoyne(1989)

Burgoyne(1989)은 역량의 구분이나 성과통합, 역량의 측정가능성 및 적절한 방법 등과 개인역량의 조직 기여나 통합과 관련된 특정 역량기반 체계에 대하여 관리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역량의 매력으로는 단순한 지식의 소유보다 행동개념을 강조하였으며, 역량체계는 보편성 (universality)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관리역량은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 스스로 행동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유연성 및 적응력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도덕적 윤리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기에 기술적 효율성과 효과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인 및 조직의 가치 간 연계성을 갖추고 상호 조정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2.1.2 Cooper & Gascón(1992)

Cooper & Gascón(1992)은 다수 선행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업가성과 성공영향 요인에 대한 프레임을 연구하였는데 경험, 교육 및 심리적 구성을 포함하여 개별 기업가의 특성으로 관련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벤처성공요인 관련 연구에서는 적절한 인과관계 이론이 없으며 벤처기업에 유용한 시장기반 지표가 부족한 점이나 연구분석 방법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장과

생존 영향변수 간 연관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Cooper & Gascón(1992)은 기업설립과정 및 성과도출과 관련하여 심리적 특성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기업가의 목표 (entrepreneur's goals), 인큐베이터 조직 (incubator organization), 정보자료 및 네트워크 (information sources and networking), 재무 (financing), 산업특성 (industry characteristics) 요인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경험이나 내적 역량, 경험, 네트워크, 협력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는데 기업가가 직면하는 광범위한 문제로 인해 폭넓은 경험이 성과를 높이고 경험에 교육요인이 추가되면 더 큰 성과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내적 역량의 경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능동적인 행동과 높은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 그 외 여러 심리적 변수 또한 성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타인을 위한 목표수립과 생존 및 성장 간 연관성, 경험이나 타인과의 교류 등을 강조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체계적인 계획, 충분한 자본조달, 교육, 관리경험, 기회추구, 외부자원 활용 등의 역량을 갖출 경우 성공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창업이란 연구흐름 보다 예측하기 어려우며, 현재까지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변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향후 연구에서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속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헌신이나 타인을 위한 행동적 특성관련 연구는 앞으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1.3 Lackeus(2014)

Lackeus(2014)는 행동 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에서 정서적 사건과 개발된 기업가 역량 간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행동기반 평가 전략은 기업가행동을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반면, 성공적인 기업가적 행동과 기업가교육 간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기업가교육에 있어 정서적 노출도 중요하게 다루었고 행동기반 학습 환경이 기업가교육의 정서적 측면을 연구하는데 특히 적합하며 학자들에 의한 감정 관점으로서의 연구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고 보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업가역량을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업가적 업무수행 의지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knowledge), 기술 (skills), 태도 (attitudes)로 정의하였다. 항목별 하위요인으로는 심적 모형 (mental models), 기업가정신 경력에 대한 자기통찰력 (self-insight), 학습스킬 (learning skills), 기업가적 열정 (entrepreneurial passion), 기업가적 정체성 (entrepreneurial identity), 능동성 (proactiveness), 인내심 (perseverance) 등을 제안하였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감정의 일반적인 원천이며 인터뷰에 따라 확인된 기업가역량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자기통찰력 및 기업가적 정체성임을 밝혔다. 기업가역량

과 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꼽히는 정서적 요인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학습 환경 및 팀워크 경험, 불확실성 및 모호성 용인, 자기통찰력을 높이는 것과의 연관성이 있으며 행동기반의 기업가교육에 의해 유발된 정서적 요인은 기술 및 지식기반 학습보다 태도학습 결과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유도하는 교육설계는 외부 세계와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의 행복과 동기부여 수준이 높아지고 때로는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경험이 자기개발 및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Lackeus(2014)는 기업가정신의 중심을 새로운 가치창출이라 보았고 교육설계를 개발된 기업가역량에 연결하는 매커니즘을 발견하고 감정적 요인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서적 사건과 기업가역량 사이에 높은 연관성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정서적 사건인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불확실성·모호성 및 팀워크와 같은 경험이 기업가적 정체성 형성, 자기효능감 증가, 불확실성 및 모호성 극복, 관용 및 향상된 자기통찰력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2.1.4 Lans et al.(2014)

Lans et al.(2014)의 연구는 지속 가능한 기업가를 위한 역량에 초점을 둔 유일한 연구로 손꼽혔으며(Ploum et al., 2018), 전통적 교육학자들은 기업가정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세계를 연결하는 첫 번째 단계로 역량접근법을 취한다는 점에 집중하였다.

기업수준 및 개인수준의 역량과 같이 보다 역동적이며 학습 가능한 구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았으며, 기업가정신교육이 기회발굴 등 특정 기업가역량 (entrepreneurial competencies)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나 기업가정신에서 개인과 사회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연구 맥락과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가역량과 관련된 기술, 태도 및 기타 특성의 목록은 광범위하다고 보았다. 또한 관심을 가진 역량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기회역량 (opportunity competence), 다른 사람들 간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사회적 역량 (social competence), 관리시스템 개발·구성·조정 능력인 비즈니스역량 (business competence), 기술 및 시장지식을 포함하는 산업별 역량 (industry specific competence), 동기부여와 같은 심리적 관점인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이 주로 언급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브룬트란트 위원회 (Brundtland Commission, 1987) 보고서에서 제안된 ‘미래세대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선언내용을 인용해 지속 가능한 개발역량의 필요성도 강조했을 뿐 아니라, Dentoni et al.(2012)의 역량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생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있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역량 (action competence)

을 제안하였다.

Lans et al.(2014)의 연구는 지속가능성과 행동역량에 집중한 점이 특히 차별적이다.

2.1.5 Bacigalupo et al.(2016)

유럽시민과 조직의 기업가역량 개발은 EU와 회원국의 주요 정책 목표였고 EntreComp 프레임은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기업가정신 역량에 대한 합의를 높이고 교육과 업무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해당연구는 EU에서 공표한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랜드마크 뿐 아니라 다양한 커리큘럼의 기업가 지향성을 분석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EntreComp는 유럽시민의 기업가적 역량을 키우는 모든 주도성의 실질적인 참조가 되도록 설정되었는데 8단계 진행 모델에 따라 15개의 역량을 개발하고 442개의 학습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역량으로 육성하는 커리큘럼 및 학습활동 개발시 참고할 수 있으며 기업가적 역량 (entrepreneurial competence)을 평가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 프레임은 아이디어와 기회, 자원 및 실행의 3개 역량군과 15개의 역량으로 구성된다.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고 자원 동원과 아이디어와 기회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사회적·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실행개념을 포함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구성역량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제시순서가 계층구조를 의미하지 않기에 모든 상황에 동일한 숙련도를 요구하거나 모든 역량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유연성을 가진다. 3개 역량군 중 첫째, '아이디어와 기회' 역량군을 살펴보면 주위 환경을 탐구함으로써 기회를 식별하고 포착하는 기회발견 (spotting opportunities)역량, 더 나은 솔루션으로 아이디어와 기회를 발굴하는 창의성 (creativity)역량, 노력과 실행을 이끌어 내는 비전 (vision)역량,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가치 있는 아이디어도출 (valuing ideas)역량, 지속가능한 기업가적 행동의 가치 및 평가와 관련되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사고 (ethical and sustainable thinking)역량이 포함된다. 두 번째 '자원' 역량군에는 자신을 믿고 발전시키는 자기인식 및 자기효능 (self-awareness and self-efficacy)역량,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는 동기와 인내 (motivation and perseverance)역량,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자원 동원 (mobilizing resources)역량, 아이디어를 가치창출 활동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재무관점의 금융 및 경제 문해 (financial and economic literacy)역량,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관련 이해관계자를 격려하고 영감을 주며 맨파워 (manpower)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는 인적동원 (mobilizing others)역량이 포함된다. 세 번째, '실행' 역량군에는 가치를 창출하고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주도권 확보 (taking the initiative)역량, 단기 뿐 아니라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 순위 및 행동계획을 정의하며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는 불확

실성, 모호함 및 위험 대처 (coping with uncertainty, ambiguity and risk)역량,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working with others)역량, 성공과 실패를 통해 경험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경험을 통한 학습 (learning through experience)역량으로 구성된다.

Bacigalupo et al.(2016)의 연구는 EntreComp에서 Lans et al.(2014)의 행동역량 (action competence)과 마찬가지로 경험을 통한 학습 (learning through experience)역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Lackeus(2014)가 기업가정신의 중심이 새로운 가치창출 (value creation)과 내면적 성장을 다루었던 맥락과 유사하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과 자기개발이나 내면적 성장과 관련되는 역량을 중요시 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2.1.6 국내 역량관련 선행연구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가 역량이란 개인이 기업인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특성이란 정의를 할 수 있다(곽동산·정철호, 2017). 국내에서 창업지원 사업을 가장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창업진흥원의 k-startup 사이트(2018)에서는 창업역량을 창업자역량, 시장기회, 아이템 분석, 비즈니스모델, 전략 트랙으로 구분하였다. 교육부 외(2019)의 대학창업운영매뉴얼 3.0+에서도 역량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창출 단계부터 창업준비와 창업 및 성장단계까지 '채움, 키움, 이룸' 각 단계별 필요역량을 제안하고 모듈단계별 적용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며 나머지 4단계 모듈은 인프라에 관한 것이다. 살펴보면 대학 정규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필요역량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필요역량을 단계별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교육적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제 교육설계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구분	창업 단계	(1단계) 아이디어 창출 : 깨움	(2단계) 창업준비 : 키움	(3단계) 창업 및 성장 : 이룸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력, 도전정신 시장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술 및 지식 시제품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팀 빌딩/마칭 네트워크
모듈명		적용이 필요한 창업 단계		
Module1(깨움)	정규 교과과정			
Module2(키움)	비교과과정			
Module3(이룸)	창업사업화			

자료: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7), 대학 창업지원모델 길잡이(p.3) 내용을 대학창업운영매뉴얼 3.0+에서 인용

<그림 1> 대학창업운영매뉴얼 3.0+중

창업단계별 필요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모듈 도출(예시) 일부

이러한 기업가역량 또는 EntreComp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계 및 실무계에서 용어나 정의, 구성, 체계 등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첫째, 용어의 경우 Entrepreneurial Competence(ies), 창업가역량, EntreComp(기업가정신역량), 창의융합역량, 창의성역량, 기업가적 태도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의 관련 역량에 대한 영문표기 또한 다양한 상황이다.

둘째, 하위 구성요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지현(2017)은 창업가역량을 기업가정신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을, 김형철 외(2015)는 청년창업가역량을 기업가정신역량, 창의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김준근(2015)은 창업가역량을 기술적 역량, 전략적 사고역량, 조직적 역량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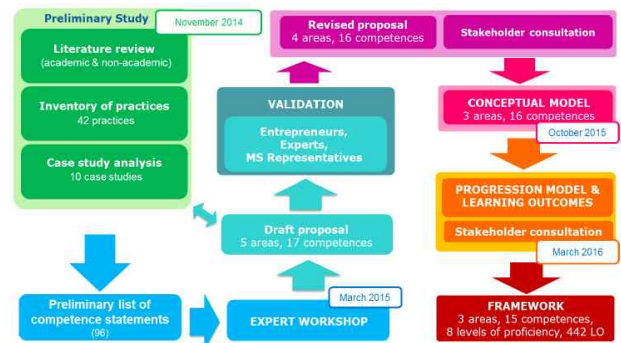
국내에서의 역량 관련분야 연구는 도입단계인 관계로, 해외 연구와 같이 요구역량을 실행단계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연구나, 지속가능성이나 가치창출·내면적 성장 등으로 역량 개념을 확장한 사례는 드물다.

2.1.7 소결

역량은 기존의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과 비교하여 삶의 관점으로 접근하며 내적 성장이나 기여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특성을 갖고, EntreComp는 지속적으로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고나 행동방식을 특징짓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된다. EntreComp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1980년대까지는 McClland(1973)와 Boyatzis(1982)의 주장과 같이 직무나 경영성과와 관련되는 개인의 특성을 뜻하다가 1990년대 이후 Spencer & Spencer(1993)는 직무를 넘어 더욱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Bacigalupo et al.(2016)의 연구에서와 같이 역량의 필요성을 타인을 위한 가치창출과 전생애적 경쟁력으로 보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왔다.

역량관련 주요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Burgoyne(1989)은 개인 역량과 조직기여 간 관계에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며 조직관점에서의 역량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역량을 지식의 습득보다는 행동개념 관점에서 강조하였고 사회에서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이나 개인 및 조직 가치 간 연계성을 다루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Cooper & Gascón(1992)은 기업설립과정 및 성과도출 관련요인을 주로 다루었는데, 교육과 폭넓은 경험이 성과를 높이는 주요 기폭제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내적역량이나 심리적 변수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았으며, 타인을 위한 헌신과 같은 행동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Lackeus(2014)는 행동 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심을 가졌고 기업가역량을 지식 (knowledge), 기술 (skills), 태도 (passion)로 구성하였으며, 내면성장이나 경험,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창출을 유도하는 교육 경험을 통해 자기개발 및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특히 지속가능한 기업가를 위한 역량에 초점을 두었는데 지속가능한 개발역량의 필요성과 책임 있는 적극적인 행동역량 (action competence)을 제안하였다. Bacigalupo et al.(2016)은 유럽시민과 조직의 기업가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다년간 연구를 통해 EntreComp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창출과 관련되며,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타인을 위한 가치창출, 경험을 통한 학습 개념을 포함하는 차별성을 가진다.



자료: Bacigalupo et al.(2016)

<그림 2> EntreComp 도출관련 주요 연구단계

국내 연구에서는 기업가역량을 기업인으로서의 역할 관점으로 보거나(곽동신·정철호, 2017), 창업가역량(김지현, 2017; 김준근, 2015), 청년창업가역량(김형철 외, 2015)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있다. 국내 주요 창업지원 사이트인 k-startup(기존 창업넷)이나 교육부 등에서 제공하는 2019년 대학창업 운영매뉴얼 3.0+ 등에서도 역량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학이 다루어야 할 교육목적이나 방향성, 교육대상인 대학생의 특성이나 시대적 요구, 정책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목적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지금까지 대학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외 연구 추이를 비교해 보면 해외연구에 비해 역량관련 국내연구는 양적으로도 충분치 않은데다 주로 기업가 관점에서 기본적인 창업스킬(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체계를 제안하는 연구는 특히 희소하다. 또한 해외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내면성장이나 자기개발, 가치창출, 윤리적 책임, 실행 개념과 같은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요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Bacigalupo et al.(2016)의 연구는 학술 및 문헌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심층 사례분석, 다중 이해관계자 간 온라인패널토론 등의 방법을 활용해 개발되었고 100명 이상의 전문가와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해외 기업가정신역량관련 연구사례 중 단연 체계적인 데다 시민과 조직의 경쟁력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년간의 심도 있는 연구로 검증되었다(Tovar et al., 2020). 이러한 역량기반 프레임 워크는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 교육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받지 못했기에 (Mets et al., 2017) 전방위적 선행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목해 볼 연구라 할 수 있겠다. 이에 EntreComp (Entrepreneurship Competence)를 본 연구에서 역량 프레임 도출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경험이나 행동, 내적 성장, 타인을 위한 가치창출과 같은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기업가정신역량의 주요 맥락을 유지하면서

도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반영할 만한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Kourilsky(1995)는 창업교육을 기회를 인식하고 자원을 배분하여 모험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광동신 외(2016)는 창업교육 또는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21세기형 새로운 직업교육 문화를 만드는 길 중의 하나라 보는 견해와 같이, 창업을 직업선택의 대안(Hills, 1988)이라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수·성상기(2015)는 누구나 최적의 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역량을 키움으로써 성공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기업가적 덕목과 역량을 지니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 대학교육의 경우 ‘대학 내 기업가정신 교육 및 경험’ 과 ‘평생교육수준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은 국제적으로 중위권이고 기업가정신 생태계지수는 조사된 20개국 중 16위에 그치고 있다(이채원 외, 2017). 또한 기존 교육의 경우 주로 단순한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4차 산업 출현 이후 환경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가정신 관련 정규교과목 구성이나 교육방법론에 대한 국내외 연구도 희소한 편이며(김영수·성상기, 2015), 창업교육은 주로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경영학 관점으로 교과목이 설계·운영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창업교육은 대학생이나 일반인 등과 같이 교육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 없이 제공되고 있는데다 창업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중심으로 운영(송영명·김예슬, 2020)되는 경우가 다수다.

최근에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되는 역량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역량교육모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틀을 찾기는 쉽지 않으며, 실제 대학에서 기업가정신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국내자료가 제한적이라 국내 교육부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몇 가지 자료 외에는 대부분 해외자료를 개별적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체계적인 기업가정신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체계 이외에도 교육의 방향성이나 주로 다루는 주제도 해외교육과 비교시 여러모로 격차가 심하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공유경제나 공유가치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업가정신교육에 기업가적 행동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가치창출로 이어지는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Lackeus(2014)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며, 여기에 기업활동과 연관성이 높으며 최근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보존에 대한 개념도 추구해야 할 가치로써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U의 경우 유럽시민과 조직의 기업가역량 개발은 회원국 간 주요정책 목표였고 EntreComp 프레임은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높

일 뿐 아니라 교육과 업무의 세계를 연결하고 기업가적 학습을 장려하는 모든 주도성에 참조가 되는 점에 집중한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홍수(2015)는 국내외 대학 창업학 교과목 분류표와 미국 대학의 교과목 리스트를 비교 분석하여 총 38개의 교과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분류하였으며 적합한 교수법도 연구하였다. 개별 창업교과목의 중요도, 필수 및 선택 교과목 선정, 융·복합 알고리즘 교과과정, 교수법 등을 제안하였다. 김영수·성상기(2015)의 경우 기업가정신 관련 학제적 연구 특성에 착안하여 HAKS모형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의 지식 및 이론들을 체계화함으로써, 정규 대학(원)의 커리큘럼부터 초·중·고 교과과정 및 비정규 성인과정까지 종합학문으로서 기업가정신 교과내용의 일관성과 위계구조를 확보하려 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국내 창업교육 역사가 길지 않은 등의 여러 이유로 다수 연구가 해외 현황을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국내 창업지원 생태계의 특성을 심도 있게 반영하기 어렵다.

연구현황에 이어 교육체계도 조사하였다. 국내 주요 창업선도대학에서의 2018년도 창업교육을 살펴본 결과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체계는 주로 3~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부터 창업단계까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진로 관점에서 내면적 성장을 포함한 동기부여나 사회적 가치창출, 시장성 있는 아이템을 도출한다거나 창업 이후 성과 도출 및 제고를 위한 내용은 기본적인 Ideation이나 Management 교육 주제에 비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단순히 교육 방법에 따른 구분만으로 창업교육을 운영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특히 기업가(정신)역량체계를 갖춘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현황이나 교육체계에 이어 국내 창업교육의 정량적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도에 4년제 대학에서는 7,761개로 전국대학에서 총 13,905개의 창업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었으나 그 중 실습위주 강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성호 외, 2020). 이와 같이 국내 대학 창업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대학생들의 창업실패 사례가 잇따르고, 창업역량 부족이 실패의 원인(이지안·안영식, 2018)이 되는 등 대학 창업교육이 질적 성장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기업가적 역량이 의도와 함께 창업성공을 견인하는 중요 요인이며 특히 창업교육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박대한·성창수, 2019) 앞으로 역량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 주요대학의 창업교육체계 현황

구분	기업가정신함양 및 창업준비 단계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초(입문, 기본)	심화	실전(심화)	성장지원
A대	○	○		
B대	○	○		

구분	기업가정신함양 및 창업준비 단계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초(입문, 기본)	심화	실전(심화)	성장지원
C대	○		○	
D대	○	○	○	
E대	○	○	○	
F대	○	○	○	
G대	○	○	○	
H대	○	○	○	○
I대	핵심교양, 전공별 융합, 심화, 현장형 실습 인턴십과정			
J대	이론형, 혼합형, 실전형			
전반	국내대학의 창업교육은 대부분 기본적인 창업스킬 중심의 3-5단계 체계로 운영 중인 반면, EntreComp(기업가정신역량) 기반 교육체계는 없음.			

2.3 창업 교육 및 지원성과

국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에 대한 평가는 주로 대학알리미(2020) 내 정보공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교과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나 벤처 등의 정해진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평가 세부항목으로는 창업강좌수 및 수강생수가 포함된다. 즉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질적인 부분은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 창업교육과 더불어 대학의 주요 창업지원성과 평가항목으로는 창업자수, 고용, 매출이 해당된다. 주요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창업분야 평가에서는 주로 창업자수만 반영되어 오다 최근에서야 일부 언론사에서 매출 및 고용성과까지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평가 구조로 인하여 대학평가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대학에서는 해당 항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장 창업교과목 수와 수강생수, 그리고 창업자수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역량기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히 정책적·실무적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역량기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나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해외사례와 비교해 더욱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검증된 교육체계나 정량적 성과도출을 위한 교육지침이 없는 한 창업 교육·지원이 대학별 창업중점 (전담)교수나 창업교육센터 담당자 등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대학 개별적으로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고도화 시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대학 뿐 아니라 정책적 개선의지와 실행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나마 창업교육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주관대학들이 인근 타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체계를 갖추으로써 주변 대학의 능동적인 컨설팅 수요를 이끌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매년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전공의 연구진들 참여를 장려하고 연구진들의 학문적 역량 뿐 아니라 실무적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성과 간 인과관계를 실증하는 연구는 주로 기업가정신, 교육만족, 자기 (창업)효능감이나 창업 의도 (의지) 등으로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EntreComp 체계나 실질적 창업교육과 지원성과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 활발히 연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II. 연구 방법

3.1 EntreComp(기업가정신역량)도출 절차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해 역량 관점의 대학 창업교육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EntreComp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EntreComp도출을 위한 방향성 수립을 위해 창업교육 목적에 이어 창업교육에서의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rucker의 기업가정신 정의에 기반하여 기업가정신을 ‘기업 뿐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기혁신의 바탕이자 주도적으로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변화를 모색하려는 실행의지’로 정의한다.

기업가정신역량에 대하여서는 대학교육에 적용할 기업가정신역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5개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그 중 다년간 폭넓은 연구를 통해 정제된 Bacigalupo et al.(2016)의 15개 EntreComp (Entrepreneurship Competence)와 기술창업 장려를 위하여 기술역량요인을 포함해 총 16개 역량을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교육목적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 가치와 창업활동지원 관점에서의 중요도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창업학을 전공하고 창업교육 및 창업 경력을 보유하여 대학 창업교육의 체계나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수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

대학생에게 적절한 EntreComp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패널을 구성하였고 창업분야 전문가집단 심층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델파이 (delphi)기법을 활용하여 대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8개로 구성된 EntreComp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델파이기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추출·수렴하여 집단적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기법으로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개발이나 식별, 예측, 또는 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전문가 수는 4명에서 171명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상황과 연구질문에 맞게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Skulmoski et al., 2007).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평가기준을 도출해 내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엄지·이건남, 2014)하다는 판단으로 이 기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표 6> 전문가 패널구성 현황

구분		창업학 전공	창업교육 경력	창업 경력
학계	A○○교수	○	○	-
	B○○교수	-	○	-
	C○○교수	-	○	-
	D○○교수	-	○	-
학계 및 실무계	E○○교수 대표	○	○	○
	F○○교수 대표	○(창업학,디자인)	○	○
	G○○교수 대표	○	○	○
실무계	H○○대표	○	○	○
	I○○대표	○	○	○
	J○○센터장	○	○	○

EntreComp 도출과정은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과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관련자격을 갖춘 전문가 5인 간 토론과정을 거쳤다. 국내 창업선도대학의 창업교육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에 적절한 역량으로 Bacigalupo et al.(2016)의 EntreComp (entrepreneurship competence)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EU의 EntreComp는 15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전생애에 걸친 교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학생 대상 역량프레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절히 보완절차가 필요하였다. 이에 2단계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목표를 정의하였고 이와 부합하는 EntreComp 프레임의 도출하고자 하였다.

3.2 EntreComp (기업가정신역량)관점 교육 분류 절차

도출된 EntreComp프레임을 기준으로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을 분석하고자 2018년도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42개 대학의 학부대상 창업교과목 919개를 연구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각 창업교과목의 커리큘럼 내용을 분석하여 대학별 창업교육에서의 EntreComp 반영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1단계로 창업학 전공 및 창업경험이 있으며 창업교육 경험이 있어 해당 연구분야에 조예가 깊은 창업전문가 다수가 각자 개별적으로 8개 역량과 919개 교육간 매칭절차를 중복검토 하였으며, 2단계로 서로 다르게 매칭된 부분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보완하여 최종 매칭작업을 완료하였다.

IV. 연구결과

4.1 EntreComp (기업가정신역량) 설정

본 연구에서의 EntreComp 체계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에서의 요구역량을 함양하며 주도적으로 자기개발 및 타인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실행하는 기업가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적을 기반으로 한다. 대학생 대상의 EntreComp는 이러한 교육목적과 기업가정신의 정의와도 같은 맥락으로 구성하고, 교육 및 창업관점에서의 주요 요인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Bacigalupo et al.(2016)이 연구하고 EU가 공표한 15개의 EntreComp에 대학에서의 기술창업 육성 필요성 및 기술로 융합되는 4차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활용역량을 추가해 총 16개의 역량을 기준으로 EntreComp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EntreComp와 관련되는 국내외 25개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EntreComp별 연구빈도는 <표 7>과 같다.

<표 7> EntreComp(기업가정신역량)관련 연구현황

Bacigalupo et al.(2016)	Entrepreneurship Competencies	Ideas & Opportunities					Resources					Into action				
		spotting opportunities	creativity	vision	valuing ideas	ethical & sustainable thinking	self-awareness & self-efficacy	motivation & perseverance	mobilising resources	financial & economic literacy	mobilising others	<추가> digital technology	taking the initiative	planning & management	coping with ambiguity, uncertainty & risk	working with others
Burgoyne (1989)	managerial competence	○	○	○	○	○	○	○	○	○		○	○	○	○	○
Cooper & Gimeno (1992)	entrepreneurial performance	○						○		○			○	○	○	○
Morris et al. (2013)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	○		○		○	○	○				○	○	○	
Lackeus (2014)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	○	○					○	○	○	
Lans et al.(2014)	competencies for sustainable entrepreneurship	○				○							○		○	○
Kissi et al.(2015)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	○			○	○	○		○		○	○	○	○	
Orhei et al.(2015)	social entrepreneurship competence	○	○		○	○	○	○				○	○	○	○	○

Bacigalupo et al.(2016)	Entrepreneurship Competencies	Ideas & Opportunities					Resources					Into action					
		spotting opportunities	creativity	vision	valuing ideas	ethical & sustainable thinking	self-awareness & self-efficacy	motivation & perseverance	mobilising resources	financial & economic literacy	mobilising others	<추가> digital technology	taking the initiative	planning & management	coping with ambiguity, uncertainty & risk	working with others	learning through experience
Mets et al.(2017)	entrepreneurial competences	○	○			○	○	○		○		○	○	○	○		
Ploum et al.(2018)	competence for sustainable entrepreneurship						○	○									○
Strauti et al.(2018)	entrepreneurial competences	○	○	○	○	○	○	○	○	○	○	○	○	○	○	○	○
Bauman & Lucy(2019)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					○		○								○
Daliman et al.(2019)	entrepreneurship competence		○				○	○					○			○	
Tovar et al.(2020)	entrepreneurship competence	○	○	○	○	○	○	○	○	○	○	○	○	○	○	○	○
Hu & Yuan(2020)	entrepreneurship competency	○			○	○										○	
김문성(2013)	창업자 역량	○															
김춘근(2015)	창업지역량	○										○		○		○	
김형철 외(2015)	청년창업지역량	○	○				○					○		○			
이상화 하규수(2015)	창업역량	○												○		○	
이용희(2016)	창업자 핵심역량	○	○									○		○			
김정연(2017)	창의융합역량	○			○		○									○	
김지현(2017)	창업지역량	○	○		○		○	○	○			○		○			
인태욱 외(2017)	창의성역량	○	○											○		○	
채연희(2017)	기업가적 역량								○			○		○		○	
이혜영·김진수(2018)	창업초기 창업역량	○			○				○	○		○		○		○	
연구빈도		20	12	3	9	9	14	12	7	8	2	7	6	19	8	18	8

spotting opportunities 및 planning & management가 빈번히 연구되고 있는 반면 vision과 taking the initiative 등은 비교적 낮은 연구빈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자원을 구성하는 역량에 대한 연구빈도가 낮고 기회를 창출하고 전략수립이나 네트워크 관련분야가 비교적 빈번하게 연구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역량별 연구빈도 순으로는 spotting opportunities (20) > planning & management (19) > working with others (18) > self-awareness & self-efficacy (14) > creativity (12)와 motivation & perseverance (12) > value creation (9)와 ethical & sustainable thinking (9) > financial & economic literacy (8) > coping with ambiguity, uncertainty & risk (8)와 learning through experience (8) > mobilising resources (7)와 digital technology (7) > taking the initiative (6) > vision (3) > mobilising others (2)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연구 대비 국내연구 빈도를 살펴보면 vision, ethical & sustainable thinking, mobilising others, taking the initiative, coping with ambiguity, uncertainty & risk, learning through experience를 다루는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나마 자원조달 부분에 대한 연구가 최근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전반적 관점에서의 역량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연구 현황에 더하여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 관점에서의 중요도나 창업교육을 통한 사회기여 가능한 방향, 향후 역량 진단이나 평가 적용가능성, 그리고 역량프레임 맥락이나 의미상 역량 간 상호 연관성, 그리고 수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EntreComp 프레임에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EntreComp(기업가정신역량) 프레임 도출과정

Bacigalupo et al.(2016)의 EntreComp 및 기술역량		본 연구에서의 EntreComp(기업가정신역량) 프레임	
Ideas & Opportunities	spotting opportunities	채택 1	spotting opportunities
	creativity		(spotting opportunities나 value creation에 포함가능)
	vision		(self improvement, mobilising others에 포함가능)
	(기존) valuing ideas	채택 2	(최종) value creation
ethical & sustainable thinking		(value creation에 포함가능)	
Resources	(기존) self-awareness & self-efficacy	채택 3	(최종) self improvement

Bacigalupo et al.(2016)의 EntreComp 및 기술역량		본 연구에서의 EntreComp(기업가정신역량) 프레임	
	motivation & perseverance	(self improvement에 포함가능)	
	mobilising resources	채택 4	mobilising resources
	financial & economic literacy	(mobilising resources, strategic management에 포함가능)	
	mobilising others		
	<추가> (기존) digital technology	채택 5	(최종) technology application
Into action	taking the initiative	(self Improvement에 포함가능)	
	(기존) planning & management	채택 6	(최종)strategic management
	coping with ambiguity, uncertainth & risk	(self improvement에 포함가능)	
	(기존) working with others	채택 7	(최종) relationship
	learning through experience	채택 8	learning through experience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실무 관점에서 주요 EntreComp를 살펴보면 Value Creation의 경우 Bacigalupo et al.(2016)의 valuing ideas와 비교하여 가치개념을 아이디어 분야에 제한하기 보다는 타인을 위한 가치창출이나 상생하려는 활동들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변지유 외, 2018)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역량이다. 따라서 아이디어 창출에 더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준비 및 실제 창업활동상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전방위적 역량과 실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vision은 타인을 이끌기 위한 것에 앞서 자신의 진로준비활동에서의 개인적 vision부터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ethical & sustainable thinking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적 사고를 가지는 것으로 value creation 개념과 일부 유사한 맥락으로 분류 가능하다. motivation & perseverance이나 taking the initiative, 그리고 coping with ambiguity, uncertainth & risk도 대학생 시기에 내적인 자기개발과 관련되는 역량의 일부분이 될 수 있으며, financial & economic literacy나 mobilising others도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수렴할 수 있겠다. 특히 self improvement는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의 시기적 특성을 감안해 누락시키지 않아야겠으며, 창업이후 자원조달이 가장 어려운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기에 mobilising resources도 역량프레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기술융합사회의 변화와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생계형 창업보다 기술창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technology application 역량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EU에서도 기술역량을 EntreComp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핵심역량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학습에 있어 다양한 경험자산이 중요한 데다 실행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의 교육적 효과가 배가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learning through experience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 외 기회를 발견하고 전략적 관리를 하며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하는 spotting opportunities, strategic management는 빈번히 연구되고 교육에 접목되어 왔으며 EntreComp의 기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겠고, 가치있는 ‘아이디어’의 범위적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value creation으로 수정하고, relationship

은 interpersonal 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회 다양한 대상이나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중요성을 내포하는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역량도출 과정에서의 주요 변경사항은 자기신념을 가지고 자아를 성장시키는 역량으로 motivation and perseverance를 동기과 인내를 넘어 진로개발 관점에서의 자기개발의 의미를 포함하는 self improvement로 변경, 디지털 기술시대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은 digital technology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범위를 넘어 응용·활용의 의미도 포함시킬 수 있는 technology application으로 수정하였으며, 사업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역량은 strategy & business plan에서 계획이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에 문구를 축약하고 사업계획을 넘어 사업화 전반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strategic management로, 마지막으로 협업이나 네트워크·관계를 관리하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통해 다른 구성원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량은 interpersonal에서 대인관계의 범위를 넘어 정보사회의 전반 특성을 반영시키고자 relationship으로 역량명칭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최종 EntreComp 프레임은 기존 16개 역량에서 8개 역량으로 수렴하였고 추출된 최종 8개 역량은 문제발견 및 기회포착역량 (spotting opportunities),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창출역량 (value creation),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면적 자아성장과 자아실현 개념을 포함하는 자기개발역량 (self improvement), 인적·물적 자원을 조달하는 자원동원역량 (mobilising resources), 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활용역량 (technology application), 전략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전략적관리역량 (strategic management),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계구축역량 (relationship),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을 체화하는 역량인 경험을 통한 학습역량 (learning through experience) 이다.

<표 9> EntreComp (기업가정신역량)의 조작적 정의

변 수		조작적 정의	참고자료
Entrepreneurship Competence		기업가적 실행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실행력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본질적인 인생에 경쟁력이나 존재가치를 추구하는 것	White(1959), McClelland(1973), Corbin(1993), Bacigalupo et al.(2016)
Ideas & opportunities	spotting opportunities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발굴하는 역량	Morris et al.(2013), Bacigalupo et al.(2016)
	value creation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창출하는 역량	Morris et al.(2013), Lackeus(2014), Bacigalupo et al.(2016)
Resources	self improvement	자기신념을 가지고 내적인 성장 및 자아를 실현하는 역량	Morris et al.(2013), Bacigalupo et al.(2016)
	mobilising resources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역량	Morris et al.(2013), Bacigalupo et al.(2016), 이해영·김진수 (2018)
	technology	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김지현(2017), Tovar et al.(2020)

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자료
Into action	application	
	strategic management	Lackeus(2014), Bacigalupo et al.(2016)
	relationship	Morris et al.(2013), Bacigalupo et al.(2016)
learnig through experience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을 체화하는 실행역량	Lans et al.(2014), Bacigalupo et al.(2016)

앞에서 언급한 본 연구에서의 기업가정신 정의와 교육목적 을 내포하여 EntreComp는 기업가적 실행을 통해 자아를 실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실행력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본질적 인 전 생애 경쟁력이자 존재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보았고 앞의 <표 9>와 같이 역량별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4.2 EntreComp (기업가정신역량)관점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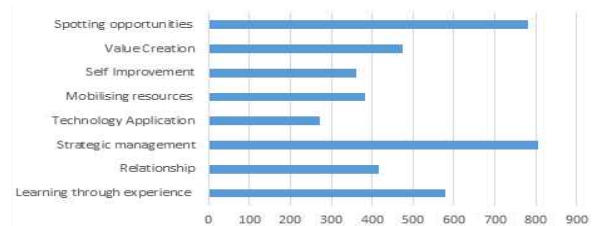
2018년도 4년제 창업선도대학 42개의 학부 창업교과목 919 개를 본 연구에서 도출된 8개의 EntreComp를 기준으로 분류 하는 절차를 거쳤다. 1단계 분류시에는 광범위한 교육그룹을 기회인식 및 포착, 문제해결 및 분석, 융복합응용, 트렌드미래 전망, 디자인씽킹, 인문학적 소양, 니즈가치창출, 마인드셋, 비전 및 동기부여·인내, 열정 및 도전정신, 진로개발, 창업기본 스킬, 경제 및 재무, 자원활용, 기술·기술사업화, 기획계획, 전략수립, 전략적경영·비즈니스스킬, 성공전략, 협업, 네트워크·관계, 커뮤니케이션, 현장학습, 캡스톤디자인 등으로 분류 하였고 2단계에서는 교육별로 8개 역량내용의 포함여부를 확인 하였다. 919개 교과목별 커리큘럼 내용에 포함되는 역량을 일 일이 구분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가별 각자 중복검토를 거친 후 상호 매칭결과가 다른 부분은 추가 검증을 통해 역 량과 교육간 매칭을 완료하였다.

<표 10> 역량별 주요 창업교과목명 분류 과정현황

역량	교육군	확인된 주요 교과목명 및 주요 주제
spotting opportunities	기회인식·포착, 문제해결·분석, 융복합·응용, 트렌드·미래전망	기회 인식 및 포착, 아이템선정을 위한 창조적사고, 창의력사고,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이션, 아이디어발상기법, 아이디어발굴, 혁신적 문제해결, TRIZ, 아이디어검증, 사례분석, 시장성분석, 융복합, 초연결, 통합, 응용, 개방, 트렌드, 환경흐름, 기술변화, 기술동향, 미래사회전망, 선견지명
value creation	디자인씽킹, 인문학적 소양, 니즈·가치창출, CSR·CSV	기업가정신, 디자인씽킹(경쟁), 고객지향적, 고객인터뷰, 고객분석(고객지향적 마케팅 활동), 시장조사,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적 사고, 공감, 니즈 & 가치창출, 가치탐구 (일반 '기업기술가치평가와 달리 '소비자 가치, 사회가치와 같은 타인가치를 뜻함), 사회기여, 공유, CSR, CSV, 지속가능(지속적성장),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self improvement	마인드셋, 비전, 동기부여, 인내, 열정, 도전정신,	자이인식, 자이분석, 자기개발, 마인드셋, 긍정마인드,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기경영, 비전·동기부여, 미션, 열정, 도전정신,

역량	교육군	확인된 주요 교과목명 및 주요 주제
	진로개발	진로탐색, 진로설계, 진로결정, 경력개발, 경력대안설계, 미래인재상
mobilising resources	창업기본스킬, 경제, 재무, 인사·조직관리, 외부자원활용	창업자자질, 비즈니스마인드, 창업기본스킬, 리더유형, 비즈니스 매너, 경제, 재무, 인적자원 관리, 인사관리, 인재발굴 관련 설득
technology application	기술성, 기술사업화, 신기술 습득, 신기술 활용	기술, 기술내용 일부도입 일반적 이론교육, 기술지향적, 기술사업화, 기술전문 사업화, 신기술 습득, IoT, 3D프린팅, 로봇, 빅데이터 등
strategic management	기획, 계획, 전략수립, 전략적 경영 (비즈니스스킬), 성장전략	사업계획서작성, 목표수립&달성관리, 자원 획득&관리,수익, 투자유치, 제품개발·운영, 지재권, 법적절차(인력, 자금, 지재권, 법률, 인중, 위기관리 등), 수익, 브랜드자산, 경영필요지식, 창업 프로세스, 환경분석, 정책, 창업목적, BM개발, 사업준비, 회사 설립, 회사설립계획, 기업설립절차, 사업자 등록증기획,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네이밍, 생산·제조, 품질관리, 프랜차이즈, 유통, 벤처확인, 전자상거래, 기술가치평가,글로벌, 사업화능력, 실무능력, 벤처미팅, 실패성공요인, 전략(수립),계획수립, 신제품기획, 글로벌화(무역, 수출입절차, 해외거래처 선정, 무역계약, 수출입마케팅), 브랜드전략, 판매전략, 프로토타이핑, 차별화, 아웃싱, 기술전략, 서비스, 제품/품질/서비스관리, 프로젝트관리, 리스크관리, 사업확장, 다각화, 성장관리, 수직적·수평적통합, 출구전략
relationship	협업, 네트워크 및 관계, 커뮤니케이션	협업,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활용, SNS, 인터넷보안관리, 관계, 고객대응, 정보검색 활용, 신뢰, 갈등관리, 협업, 소통, 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기법, 작성노하우, 발표스킬업, one page proposal 작성, 이메일커뮤니케이션, 발표멘토링
learning through experience	현장학습, 캡스톤디자인, 경험학습	시제품제작, 프로토타이핑, 현장학습,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역량별 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기회발견 및 전략적관리 역량분야에 교육이 집중되는 반면 자기개발이나 자원조달, 기술활용역량과 관련되는 교육은 비교적 부족한 상황이다. 기회발견 및 전략적관리 분야로 교육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역량별 연구빈도 현황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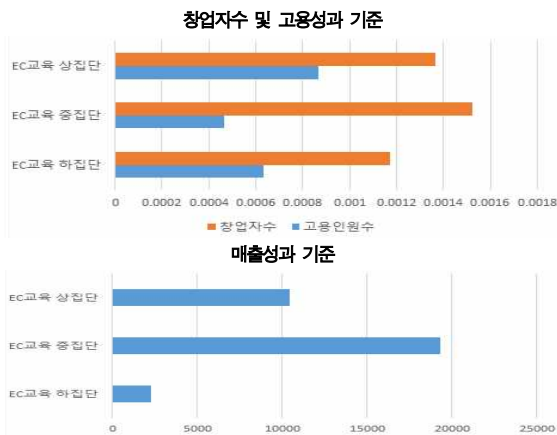
자료: 이철기 외(2019), 연구자 정리

<그림 3> EntreComp(기업가정신역량)별 교육현황

기회발견 분야에서는 design thinking도 적절히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TRIZ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해결기법을 활용한다거나 지금까지 주로 경영관점에서 창업교육이 이루어진 결과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기존 창업교과목을 EntreComp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역량별 교육분포 간 편중이 심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4.3 추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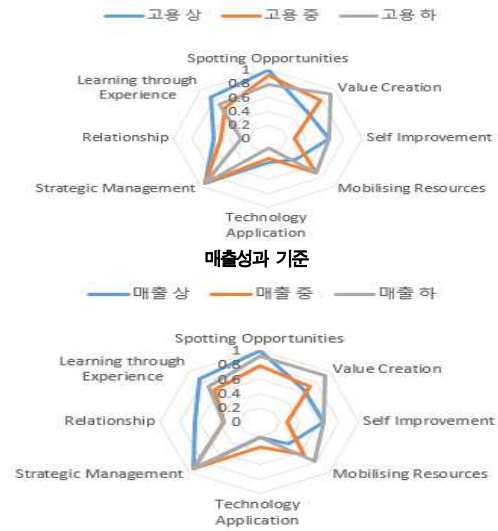
EntreComp 8개와 대학별 창업교육을 매칭하여 EntreComp교육 현황을 도출하였으며 42개 창업선도대학별 EntreComp교육 평균치/재학생 수치를 전반적으로 상증하로 나누어 EntreComp 교육 수준별 및 지원성과 항목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EntreComp교육 평균치는 919개 각 교과목이 8개 역량 내용을 포함하는 여부를 수치로 구분하고 대학별 전체 교과목의 역량교육 포함 현황의 평균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EntreComp 교육수치가 중간인 대학집단의 창업자수 및 매출 성과가 가장 높았고, EntreComp교육 상위 대학집단이 그 다음으로 창업자수와 매출성과가 높았다. EntreComp교육 하집단의 경우는 창업자수나 매출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고용성과의 경우 EntreComp교육 상집단의 성과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집단이 고용성과 2순위이고 창업자수 및 매출이 가장 높았던 EntreComp교육 중집단의 고용성과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연구자 정리
 <그림 4> EntreComp교육 상증하 집단별 창업자수, 고용, 매출 성과

전반적으로 EntreComp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지원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는 각 성과의 상증하 집단별 EntreComp 교육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료: 연구자 정리
 <그림 5> 각 성과의 상증하 집단별 EntreComp교육 현황

파란색이 각 성과의 상위집단인데 역량별 교육분포가 비교적 고르며, 좌측에 위치한 relationship이나 learning through experience역량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반면 성과가 낮은 집단의 경우 Value Creation이나 Mobilising Resources 교육빈도가 높은 편인 반면 Relationship 분야 교육이 비교적 낮은 특성을 보인다.

다음으로 EntreComp와 교육을 매칭한 리스트 및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해 EntreComp교육 현황과 지원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EntreComp교육 상증하 집단별 창업자수, 고용인원수, 매출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2019년도에 공시된 2018년도 대학 정보공시상 성과수치를 대학별 당해년도 재학생수로 나누어 비교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창업선도대학의 제한적인 표본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밝히기 어려우나 EntreComp 교육 수치와 창업지원 성과 간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반영할 EntreComp 프레임 도출하였다. Bacigalupo et al.(2016)의 연구가 기반이 되었으며, 이 연구를 지지한 Tover et al.(2020)과 Strautia et al.(2018) 등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여 도출된 역량은 spotting opportunities, value creation, self improvement, mobilising resources, technology application, strategic management, relationship, learning through experience 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역량프레임 구축을 목적으로 Bacigalupo et al.(2016) 연구에서의 15개 역량을 7개로 수렴하였으며, 기술창업을 육성해야 하는 대학의 특성과 기술융합 시대를 감안해 기술활용역량을 추가하였다. EU에서도 기술역량을 EntreComp와는 별도의 필수역량으로 장려하

고 있다.

둘째, 도출된 *EntreComp*와 국내대학 창업교육과의 연관성을 밝혔다. 8개의 역량과 2018년 42개 창업선도대학의 창업교육 919개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역량별로 교육이 제공되는 빈도는 *strategic management > spotting opportunities > learnig through experience > relationship > value creation > mobilising resources > self improvement > technology application*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기회발견이나 전략적관리 역량 교육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기술이나 자기개발, 자원조달 역량분야 주제는 교육 운영시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EntreComp*에 대한 교육현황이 역량별로 분류할 경우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대학은 생계형창업이 아닌 기술창업을 장려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사회진출을 앞두고 진로준비를 위해 내면적 성장 등 자기개발을 해야 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단편적인 창업스킬 뿐 아니라 창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내면성장을 포함한 자기개발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기술창업시 역량있는 인력을 채용·관리하거나 인건비 등 자금부담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자원조달 교육도 더욱 강화 및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추가분석으로 *EntreComp* 교육빈도와 대학정보공시의 주요 창업지원성과인 창업자수, 고용인원수, 매출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2018년도 42개 창업선도대학의 919개 각 창업교육목별로 8개의 *EntreComp*를 포함하는 비율의 대학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상중하 대학으로 나눈 후 2019년도 대학정보공시상 창업지원성과인 창업자수, 고용인원수, 매출 성과를 각 대학의 동일시기 재학생수로 나눈 값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EntreComp*를 창업교육에 반영하는 비율이 높은 대학일수록 창업자수와 매출 성과도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반면 *EntreComp*교육 중간수준의 대학집단은 창업자수 및 매출성과가 가장 높음에도 고용성과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시기에 *EntreComp*교육 중간수준 집단의 창업아이템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서비스 보다 제조에 편중되고 있었을 가능성이나 소재 관할구역별 인건비지원사업의 수혜가능성 등과 같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외 다른 영향변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향후 추가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학정보공시의 창업지원성과에 따라 대학을 구분하여 성과수준별 대학간 *EntreComp*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창업자수, 고용인원수, 매출액 수준별 집단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창업교육에서의 *EntreComp* 포함비율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집단은 창업교육에 8개 역량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성과 상위 집단의 경우 *technology application, relationship, 그리고 learning through experience* 역량교육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성과하위 집단의 경우 *value creation*과 *molilising*

resources 역량에 대한 교육 비율이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자원조달역량은 특히 창업시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예상외의 인과관계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해당 교육이 창업실무에 도움 되도록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가치창출 역량교육 또한 사회트렌드 변화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역량으로서 교육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EntreComp*교육이 낮은 집단의 성과특성을 다시 살펴보면 창업자수와 매출은 가장 낮은 반면 고용성과는 중간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들 중 일부가 사회적기업을 장려하는 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인 이유 등에 대해서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사회적기업의 인증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국내의 경우 특정 조건의 인력을 다수 채용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기준과 충분치 않은 지원체계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기업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노력이 뒷받침 되고 대학에서는 사회 가치창출에 앞장서면서도 지속성장 할 수 있는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소셜벤처 개념을 창업교육에 접목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안한다면 첫째, 대학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교육목적에 반영해야 하며, 둘째,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반영시켜 *EntreComp*기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고도화 해 나가야 한다. 현재 *EntreComp* 관점에서의 창업교육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대학생들이 진로 관점에서 자기개발을 하며 실제 기술창업시 사업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이에 현재 부족한 가치창출이나 자기개발, 자원조달역량 관련교육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기술활용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앞둔 대학생들이 경험을 통한 학습 참여를 확대해 경험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 및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8개 역량 간 심한 편중됨이 없으면서 필요한 역량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관점에서 교육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역량은 직업개념을 넘어서는 확대된 차원으로(Orhei et al., 2015) 전생애적 경쟁력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Bacigalupo et al., 2016). 창업실무교육에서 더욱 확대된 개념으로, 미래역량으로써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역량을 높여 나간다면 청년실업을 해소의 새로운 동력원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에서는 역량교육과 지원성과 간 관계를 밝히고 역량교육으로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학생-정부와의 상생구도 안에서 창업지원성과와 함께 더 나아가 취업지원 성과까지도 효과적으로 제고시켜 나가는데 도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즉,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머지않아 대학

창업교육을 통해 한계에 치닫고 있는 취업률을 높여나가는 데도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교육이 설계되고 평가되는데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지원이나 평가체계 등에서의 정책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정시점의 창업선도대학 교육을 전수조사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창업선도대학사업 이외의 창업교육이 함께 고려되지 않은 점과 EntreComp분야 국내외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충분한 선행연구가 뒷받침 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추가분석의 경우 창업선도대학 표본수의 제한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할 수 없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기반이 미흡한 역량 관점에서 대학생들 대상의 창업교육체계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EntreComp 프레임의 수립하고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역량교육과 창업지원성과 간의 연관성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국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체계나 교육내용, 그리고 실제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 또한 희소한 상황을 감안 한다면, 앞으로 EntreComp프레임 기반으로 대학 창업교육을 고도화시키고, 역량기반의 대학 창업교육 관련 연구를 활성화 시켜 나감에 있어 선행연구로써 기여할 뿐 아니라 관련정책 수립 시에도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 곽동신·정화영·김명숙(2016).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 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4), 37-48.
- 곽동신·정철호(2017). 대학생 창업자의 역량 정도가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0), 383-390.
- 교육부·한국연구재단·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9). *대학창업운영 매뉴얼 3.0+*. 서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교육팀.
- 김도현·이재원·이병한·이춘우(2020).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 2019 한국보고서*. 서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김문성(2013). *TEC 알고리즘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 역량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 김영수·성상기(2015). 기업가정신교육의 교과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HAKS모형에 기반한 모듈식 교육방안. *상업교육연구*, 29(5), 1-30.
- 김용태(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2), 13-20.
- 김정연(2017). *대학생 창의융합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김지현(2017).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부지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 김춘근(2015). *창업지원시스템과 창업가역량이 초기 기술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 김형철·임아름·김권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파에 미치는 영향: 창업사전준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8(2), 27-58.
- 김홍수(2015). 융복합 창업교육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3(5), 79-88.
- 남정민(2017).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의 효과성 검증: 플립러닝 및 PBL 기반 기업가정신교육 적용 사례. *벤처창업연구*, 12(2), 31-40.
- 목영두·최명길(2012).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5(2), 833-857.
- 박대한·성상수(2019). 대학 창업교육 이수 학생들의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및 기업가적 의도와외의 관계 연구. *취업진로연구*, 9(3), 91-110.
- 박우중(2014).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대중소기업 협력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박천오·김삼목(2004). 정부산하단체 임원의 공통 직무수행역량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1-25.
- 변지유·이상곤·강순빈(2018). 기업가정신, 전략적지향성과 경제적사회적 가치 간 관계연구: 6차산업화 인증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5), 1-16.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송영명·김예슬(2020). 한국과 미국의 대학 내 창업교육 분석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32(4), 988-1006.
- 송주현(2014).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안태욱·이일한·박재환(2017). 창의성역량 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부모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6), 25-39.
- 엄지·이건남(2014). 텔레비전 기반을 활용한 초등학교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 도출. *실과교육연구*, 20(1), 29-54.
- 오해섭·맹영임(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14-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화(2016). *창업가정신 창업역량 및 창업가특성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플로우(Flow)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이상화·하규수(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플로우(Flow)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37-150.
- 이성호·김정음·남정민(2020).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분석을 통한 대학창업발전방안 연구: D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4), 151-160.
- 이순희(2015). *중소 IT기업 N사 영업사원의 핵심역량모델 개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 이용희(2016). *벤처기업 창업자의 핵심역량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지안·안영식(2018).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역량 측정도구 개발. *벤처창업연구*, 13(4), 197-209.
- 이철기·문일영·이상곤·안태욱·변지유(2019).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모델개발(2018-5)*.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센터.
- 이재원·이병한·김도현·이춘우·강시우·조성현·김문선(2017).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 서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이혜영·김진수(2018). 초기 및 후기 기술창업기업 창업가의 역량 모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4), 99-116.
- 정길호(2017). *창업자역량, 창업팀의 조직문화, 외부협력, 창업지원 활용이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

- 향 박사학위논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 정차근(2013).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현황과 과제*(THE HRD REVIEW 16(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7). *대학 창업지원모델 길잡이*. 대전: 창업진흥원.
- 채연희(2017). 대학생의 기업가적역량이 취업가능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실패인식의 조절효과. *경영교육연구*, 32(4), 165-183.
- 필립코틀러(2015). *다른 자본주의*. 서울: 더난출판사.
- 대학알라미(2020). *대학정보공시*. Retrieved (2020.07.01) from <https://www.academyinfo.go.kr>.
- 창업넷(2018). *기업가역량*. Retrieved (2018.05.01) from <https://www.k-startup.go.kr/main.do>.
- Ahn, T. U., Lee, I. H., & Park, J. W.(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Creativity Competency Education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through Parent Cooper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6), 25-39.
- Bacigalupo, M., Compylis, P., Punie, Y., & Brande, G.(2016). *Entrecomp: The 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works*.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Barth, M., & Rieckmann, M.(2007). Developing Key Competen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8(4), 416-430.
- Bauman, A., & Lucy, C.(2019). Enhancing entrepreneurial education: Developing competencies for succ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3(5), 1-10.
- Bian, J. Y., Lee, S. K., & Kang, S. B.(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Strategic Orientation, and Socio-Economic Values: Focusing on companies certified as sixth industrialization enterpri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5), 1-16.
- Boyatzis, R. E.(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Brundtland Commission(1987). *Our common future: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urgoyne, J.(1989). Creating the Managerial Portfolio: Building on Competency Approaches to Management Development. *Management Learning*, 20, 56-61.
- Chae, Y. H.(2017).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Employ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 and Moderating Effect of Fear on Start-up.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32(4), 165-183.
- Changupnet(2018). *Entrepreneurial Competence*. Retrieved (2018.05.01) from <https://www.k-startup.go.kr>.
- Chong, K. H.(2017).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Organizational Culture of Start-up Team, External Cooperation,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o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of Technology Start-up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Education.
- Cooper, A. C., & Gascón, J. G.(1992). *Entrepreneures, Processes of Founding, and New-Firm Performance*. In D. L. Sexton and J. D. Kassadra, eds,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Boston: PWS-Kent.
- Corbin, J.(1993). Competencies for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s. *The Public-Access Computer Systems*, 4, 5-22.
- Daliman, D., Sulandari, S., & Rosyana, I.(2019). The Achievement of Entrepreneurship Compet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Gender Role, Attitude and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Controls Mediation. *Journ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Research*, 10(4), 392-426.
- Dentoni, D., Blok, V., Lans, T., & Wesselink, R.(2012). Developing human capital for agri-food firms' multi-stakeholder interactions. *International Food and Agribusiness Management Review*, 15, 61-68.
- Hills, G. E.(1988). Variations in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 Empirical Study of an Evolving Field.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2), 109-122.
- Hu, M. L. M., & Yuan, Y. H.(2020). Constructing the Assessment Scale of Youth's Restaurant Entrepreneurship Competency: The Case of Taiwan. *SAGE Open*, 10(1), 1-18.
- Jung, C. G.(2013). *Current status and tasks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for revitalizing youth entrepreneurship*(THE HRD REVIEW 16(5)).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Katz, R. L.(1974). Skills of an Effective Administrator. *Harvard Business Review*, 52(5), 90-102.
- Kim, C. K.(2015). *Analysis of Factors Influence the Early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nowledge-based Technology and Energy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 Kim, D. H., Lee, C. W., Lee, B. H., & Lee C. W.(2020).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19 Korea*. Seoul: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 Kim, H. C., Lim, A. R., & Kim, K. P.(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8(2), 27-58.
- Kim, H. S.(2015). A Study on the Convergenc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5), 79-88.
- Kim, J. H.(2017).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Focusing on Moderation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Kim, J. Y.(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reativity Confluence Competency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Kim, M. S.(2013). *Impact of satisfaction with TEC algorithm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test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 competence*. Master's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 Kim, Y. S., & Seong, S. K.(2015). About the subject matter and method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modular

- education plan based on the HAKS model. *Commercial Education Research*, 29(5), 1-30.
- Kim, Y. T.(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Undergradu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13-20.
- Kissi, E., Somiah, M., & Ansah, S. K.(2015). Towards Entrepreneurial Learning Competencies: The Perspective of Built Environment Students. *Higher Education Studies*, 5(1), 20-30.
- Kotler, P.(2015). *Confronting Capitalism*. Seoul: Thenan Publishing House.
- Kourilsky, M.(1995). Entrepreneur Education: Opportunity in Search of Curriculum. Business Education Forum, Kansas: The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 Kwak, D. S., Jung, H. Y., & Kim, M. S.(2016). The Effect of University Entrepreneurial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Education Satisfaction,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37-48.
- Kwak, D. S., & Jung, C. H.(2017).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 Capability,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0), 383-390.
- Lackeus, M.(2014). An Emotion Based Approach to Assessing Entrepreneuri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2(3), 374-396.
- Lans, T., Blok, V., & Wesselink, R.(2014). Learning Apart & Together: Towards an Integrated Competence Framework for Sustainable Entrepreneurship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62, 37-47.
- Lee, C. K., Moon, I. Y., Lee, S. K., Ahn, T. W., & Bian, J. Y.(2019).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developm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HRD Center Research Report 2018-5)*. Cheonan: Koreatech HRD Center.
- Lee, C. W., Lee, B. H., Kim, D. H., Lee, C. W., Kim, S. W., Cho, S. H., & Kim, M. S.(2017). *2016 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Seoul: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 Lee, H. Y., & Kim, J. S.(2018).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Competency Model in Early-and Late-Stage Technology-Based Ventur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99-116.
- Lee, J. A., & Ahn, Y. S.(2018). Developing Measurement Tool of Entrepreneurship for Young Entrepreneu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197-209.
- Lee, S. H.(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start-up competency and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 Lee, S. H.(2015).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y model for salespersons of small and medium IT company 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Women's Human Resource Development.
- Lee, S. H., Kim, J. E., & Nam, J. M.(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Start-up through the Analysis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Focusing on the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of D Univers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151-160.
- Lee, S. W., & Ha, K. S.(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37-150.
- Lee, Y. H.(2016). *Development in Core Competence Model of Venture Entrepreneurs*.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ets, T., Kozilnska, I., & Raudsaar, M.(2017). Patterns in Entrepreneurial Competences as Perceived Learning Outcom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Case of Estonian HEIs.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31(1), 23-33.
-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2019). *University Startup Management Manual 3.0+*. Seoul: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 Morris, M. H., Webb, J. W., Singhal, S., & Fu, J.(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 Mulder, M.(2014). *Conceptions of professional competence*. New York: Springer.
- Nam, J. M.(2017). A Study between Onlin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Based on PBL(Problem-Based Learning) and Flipped Learn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31-40.
- Mok, Y. D., & Choi, M. G.(2012).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Model to Systemiz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dergraduate School.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5(2), 833-857.
- Oh, H. S., & Maeng, Y. I.(2014). *A Study on Measures to Nurture Young Entrepreneurs and Promote Business Startups*.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Orhei, L. E., Nandram, S., & Vinke, J.(2015). Social Entrepreneurship Competence: Evidence from Founders of Social Enterprises in Rom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25(1), 80-105.
- Park, C. O., & Kim, S. M.(2004). The Common Factors of Managerial Competency in Public Enterprises.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5(1), 1-25.

- Park, D. H., & Sung, C. S.(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e, Entrepreneurial Attitud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tudents: Verification of Difference between University and College.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9(3), 91-110.
- Park, Y. J.(2014).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aborative Performance of Large Corporations and SMEs on Innovative Capabilities of SME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Picklem, H. B., & Abrahamson, R. L.(1990). *Small Business Management*. John wiley & Sons.
- Ploum, L., Blok, V., Lans, T., & Omta, O.(2018). Toward a Validated Competence Framework for Sustainable Entrepreneurship. *Organization & Environment*, 31(2), 113-132.
- Rowe, C.(1995). Clarifying the Use of Competence and Competency Models in Recruitment, Assessment and Staff Development. *Industrial and Commercial Training*, 27(11), 12-17.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MA: Hogrefe & Huber Publishers.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2017). *Guide to the university start-up support model*. Daejeon: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Skulmoski G. J., Hartman, F. T., & Krahn, J.(2007). The delphi method for graduate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6, 1-21.
- So, K. H.(2007). ‘Competency’ in the Context of Schooling: It's Meaning and Curricular Implication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3), 1-21.
- Song, J. H.(2014). *A study on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Design Plan*.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Song, Y. M., & Kim, Y. S.(2020).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Korean and American Universitie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32(4), 988-1006.
- Spencer, L. M., & Spencer, S. M.(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Wiley.
- Strauti, G., Dumitrache, C. M., & Taucan, I. M.(2018). Entrepreneurial competences in economical engineering curriculum in Roman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38, 737-742.
- Tovar, E., Tabuenca, B., & Piedra, N.(2020). *EntreCom4ALL MODEL to sustain the entrepreneurship competence needs*. 2020 IEEE Global Engineering Education Conference (EDUCON), Porto: IEEE.
- Um, J., & Lee, G. N.(2014). Development of Career Education For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Using the Delphi Method.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0(1), 29-54.
- University reminder (2020).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Retrieved (2020.07.01) from <https://www.academyinfo.go.kr>.
- White, R.(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79-333.

Entrepreneurship Competency-Based Education Research: EntreComp (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 for Advancement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Bian, Jhi-Yoo*
Lee, Jang-Hee**

Abstract

The government has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in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while supporting start-up education. However, it failed to systematize start-up education from an academic, policy, and practical perspective and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achievements in supporting start-ups. Therefore, there is a lack of interest and effort to promote effective education. In Europe, in-depth research has already been done over many years to establish an EntreComp system. Competences create values for others and attempt to apply them to education, viewing them as the people's lifelong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it is urgent to improve the education system as domestic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is mainly focused on cultural level start-up skills and easy-to-access education from a business administration perspective. Based on this, the entrepreneurship competence-based start-up education system was designed. Next, eight EntreComp frames were drawn for university students through the Focus Group Interview (FGI) and Delphi survey methods, as well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or studies on EntreComp. In 2018, 919 start-up education programs of 42 start-up leading universities were conducted to derive the status of education by EntreComp. Prior studies of 25 entrepreneurship competences, including data from Bacigalupo et al.(2016), which studied EntreComp in the EU, were investigated and reflected the frequency of research an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start-up perspectives. Based on the purpose of the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presented in this study, the 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 consisting of a total of eight, including spotting opportunities, value creation, self improvement, mobilising resources, technology application, strategic management, relationship, and learning through experience, was derived through expert verification. It also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by competence, the degree of reflection of competence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results of support for start-ups that reflect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each university. Through this, it was suggested that future start-up education at universities could be improved from the EntreComp perspective.

It has a differentiation in research in that it conducted a thorough survey using the data on start-up courses operated by leading startup universities for a certain period. However,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because the number of samples of leading startup universities is limited. Nevertheless, this study proposes the educational goal of advancing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cultivating future required competences, and fostering entrepreneurial talents that create value for other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clear direction for subsequent research by preparing a framework for research from a more essential perspective on the 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

Keywords: Entrepreneurship competence, EntreComp Frame, entrepreneurship competence-based education,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startup education system

* First Author, Professor, Koreatech, designkoreal@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reatech, janghlee@koreatech.ac.kr